

허각, 14개월 만에 미니 앨범 '연서' 발표

떠나간 연인 생각하며 혼자 술을 마시는 한 남자의 이야기 담은 타이틀곡 '혼자, 한 잔'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빨리 무대에 서서 노래 들려드리고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날씨에 '혼자 한 잔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가수 허각이 최근 14개월 만에 미니 앨범 '연서(戀書)'로 복귀했다.

한창 앨범을 준비할때, 음원 차트는 드라마 '도깨비' OST가 장악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개의치 않았다. 허각은 "시기가 적당해서 시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다"며 '도깨비' 속 유행어를 인용하는 여유를 보였다.

망설이지 않고 '정면돌파한 덕분일까, 이번 앨범 타이틀 '혼자, 한 잔'은 일부 음원사이트(엠넷·올레뮤직)에서 '도깨비' OST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31일 오후 5시30분 기준).

그는 "'도깨비'를 정말 재밌게 봤다. 그렇게 인기 많은 OST를 넘었다는 게 영광스럽다"며 "아직도 내 노래가 많이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떠나간 연인을 생각하며 혼자 술을 마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타이틀곡을 비롯해 미니 5집 '연서'는 이른바 '허각표 발라드'를 즐길 수 있는 앨범이다.

모두 이별 노래이고, 인트로곡인 1번 트랙과 미디어 템포 발라드인 5번 트랙 '텔미 와이(Tell me why)'를 뺀 네 곡은 낮게 읊조려 감상에 젖게한 뒤 고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발라드곡들이다.

허각의 발라드는 대체로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의 노래가 대중의 마음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노래를 따로 배우거나 공부한 적



이 없다. 그래서 내 노래에 실력은 10~20% 정도다. 나머지 80~90%는 감정이야. 내가 노래의 주인공이 돼 최선을 다해 부르는 호소력. 그 진심이 많은 분께 전달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혼자, 한 잔'은 허각의 그 호소력이 통하는 노래다.

지고릴라(G.gorilla)가 작곡을, 심현보가 작사를 맡은 이 노래는 쓸쓸한 기타 선율과 애절한 허각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허각은 저음과 고음, 가성과 진성을 자유

자재로 오가며 이별 후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는 남자라는 이 노래 콘셉트를 완성한다. 그는 "'꼭 이별했을 때가 아니라도 혼자 적적할 때, 혼자 술 한 잔 할 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허각은 활동을 하지 않았던 1년 2개월, 새 앨범을 준비하던 시기는 음악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고 히트곡인 '헬로(Hello)'를 비롯해 앞서 거둔 성공이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불 다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마음을

다스렸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아내와 대화 많이 했고 다독여줬다. 아직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두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게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이날 허각의 새 앨범 음감회 진행을 맡은 MC당동은 "축각 미각 청각, 노래는 허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허각은 이에 대해, "아직 멀었다. 오래 노래하고, 오래 사랑받고 싶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몽규 회장, FIFA 평의회 위원 후보 등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진입에 다시 도전한다.

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FIFA 평의회(FIFA Council) 위원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 신청서를 지난달 28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제출했다.

2015년 FIFA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정 회장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 선거는 5월8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AFC 총회에서 치러진다.

FIFA 평의회는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IFA의 최고 집행 기구다. 지인니 인관티는 FIFA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집행위원회를 평의회로 바꿨다. 당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집행위원 25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12명을 대륙별로 나눠 추가 선출하기로 했다.

추가된 FIFA 평의회 위원 12명 중 아시아 몫은 3명이다. 당초 작년 9월 AFC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으나 올해 5월로 연기되면서 정 회장이 재차 도전장을 냈다. 지난해 정 회장은 리우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으며 일정이 겹쳐 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

선출 인원도 1명 늘었다. 기존 평의원 중 루웨이트 출신의 셰이크 아마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의 임기가 끝나 이번 선거에서 한꺼번에 뽑는다.

당선자는 규정에 따라 여성 최소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다. 임기는 2019년까지다. 선거는 총회에 참석한 각 축구협회 대표 1명씩의 투표로 치러진다.

/김민근기자

kt 위즈, 흥륜존 운영 수익금 지역 복지단체 전달

프로야구 kt 위즈가 지난해 흥륜존을 운영하며 적립한 수익금을 지역 장애우와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는데 쾌적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kt는 1일 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 흥륜존 수익금 750만원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통해 전달했다.

kt는 온라인 음원업체 kt뮤직과 함께 지난해 흥륜존인 케이티 위즈파크 외야 좌측에 '지니뮤직 흥륜존'을 만들었다. 시즌 중 kt 타자들이 친 타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50만원씩 적립했다.

주장 박경수가 가장 많은 4개의 타구를 흥륜존에 떨어뜨리는 등 시즌 중 총 15개의 홈런을 때려 총 750만원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음악가의 꿈을 잃지 않는 지역내 장애인 음악 꿈나무 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도 kt는 지난달 28일 지역 명물로 거듭난 '진미통닭'과 함께 한 흥륜존 모금액 1000만원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위즈파크 좌측 풀데 우측에 위치한 이 흥륜존에는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숨진 앤디 마르테가 친 6개의 홈런을 포함, 총 20개의 타구가 그려졌다.

이 기부금은 수원지역 8개 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택 단장은 "연고 지역 취약 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업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자이언티, 신곡 '노래' · '컴플렉스' 음원차트 장악

지난 수개월간 음원 차트 장악해온 드라마 '도깨비' OST를 밀어내



가수 자이언티(Zion.T)(28·김해솔)의 신곡 '노래'가 지난 수개월간 음원 차트를 장악해온 드라마 '도깨비' OST를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1일 음원사이트 멜론·올레·네이버·엠넷·지니·소라바다·몽키3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공개된 '노래'는 올레뮤직을 제외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올레뮤직 1위는 자이언티 다른 곡 '컴플렉스'(feat. G-Dragon)였다(오전 8시

기준). 자이언티는 '노래'와 '컴플렉스' 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 W에 포함된 전곡을 15위권 내에 올려놓으며 국내 음원시장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올레·네이버·엠넷·지니·소라바다·몽키3 등에서는 7곡 모두 10위 안에 포함돼 있다.

'노래'는 경쾌한 피아노 리듬에 자이언티 특유의 목소리, 그만의 감각적인 노랫말이 돋보이는 사랑 노래라는 평

가다.

"이 노래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라는 가사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킬링 파트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W에는 타이틀 노래 '포함 열화관' '코미디언'(Comedian) '나쁜 놈들' '미안해'(feat. Beenzino) '컴플렉스'(Complex)(feat. G-Dragon) '바람'(2015) 등이 포함돼 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